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등록 교우 : 유하영 집사(한나 목장)
2. 오늘 점심식사 후에 '몽골 단기선교팀'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팀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3. 오늘 오후 2시부터 예고한 대로 '남선교회 주관 족구대회'가 교회마당에서 진행됩니다.
4.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전반기 베푸셨던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다음 주일낮예배 기도담당은 이준화 집사님입니다. 오후찬양예배는 목장주일로 인해 없습니다.
6. '봄철 가정심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해당 가정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1일(목)- 정진숙 권사님 가정, 6월 23일(토)- 박옥하 전도사님 가정입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6월 17일	6월 24일	7월 1일	7월 8일
예배기도(오전)		신동기 집사	이준화 집사	박성대 집사	신재준 집사
예배기도(오후)		신경미 권사	목장주일	임명희 권사	김금옥 권사
주일식사담당		한나 목장 (이영선 권사)	아가페 목장 (최윤정 권사)	음식바자회 (참치회 뒤편)	헵시바 목장 (김금옥 권사)
토요일청소		갈렙, 아론 목장 (6/16)	에덴 목장 (6/23)	청년 목장 (6/30)	돌로스 목장 (7/7)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7월 16~21일에 있을 몽골단기선교를 위해서
2. 남여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봄철 가정심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암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쉼터.(국내) 사역자를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교독문 51번(시편 118편)	다같이
*경배찬송 10장(통 34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91장(통 91장)	다같이
대표기도	신동기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막 10:17-22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부르신 곳에서 응답하라'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다같이
*결단송 620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시편 92편 12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행사 진행으로 인해 오늘은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요 7:40-48 '예수의 흔적'	허영진 목사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올바른 기도의 과녁'(24)	허영진 목사
새벽기도회 (월~금)	새벽 5:30 시편 묵상 시 78:1-8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3)-(7)	허영진 목사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몽골 단기선교를 준비하면서’

(과유불급도 때론 필요하지 않을까)

<사막에 숲이 있다>는 책에 보면, 내몽골 사막에 나무를 심어 20년 만에 숲을 만든 젊은 부부의 이야기가 나온다. 풀 한 포기 없던 사막에 나무 방벽을 세우고 생명을 불러들이기까지, 여기엔 사막의 삶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했던 한 여자의 삶이 흐르고 있다. 지금은 50대가 된 주인공 인위편과 바이완상에 관한 이야기다. 스무 살 꽃다운 나이였던 인위편은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가 정해진 흔처를 따라 그 당시 사막에 살고 있던 바이완상에게 보내졌다. 처음에는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황량한 사막에서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절망감으로 울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었다. 생존의 방편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삶이었다.

그러던 중,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막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주변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혼자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다. 나중 남편의 도움으로 사막에 나무심기는 활기를 띄기 시작한다. 언젠가는 자신들이 심고 있는 나무를 통해 사막이 숲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서 말이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불가능하게 보였던 사막에 나무심기는 정말 기적 같이 사막이 숲으로 변했다. 인위편 부부는 자신들이 심는 나무 한 그루를 통해 숲을 보았기에 그 일이 가능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가진 것은 그렇게 도망치고 싶어 했던 사막이었고, 그 사막이 위안이 되었다. 척박한 모래땅에서 한 그루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 없는 돌봄이 필요했다.

옛말에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다.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말이다. 하지만 나무 한 그루를 심고서 그 나무가 척박한 모래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유불급이 무색할 정도다. 그만큼 시간과 정성이 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 또한 작은 나무를 심어 나중에 보게 될 숲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 기대와 꿈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동안 인내로써 끊임없는 돌봄이 필요하다. 몽골단기선교를 떠나는 이들, 보내는 이들 모두가 척박한 땅에 복음을 심는 선교사다. 몽골 땅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관심과 기도, 물질의 헌신은 과유불급에 반해, 좀 지나쳐도 되지 않을까 싶다.

Written by 허영진